

대학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천안시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n the Effect of the University in Area Development

박종관
백석대학교 법정학부

Jong-Gwan Park(633127@hanmail.net)

요약

이 연구는 천안지역을 대상으로 대학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었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실증 분석을 병행하였다. 설문지는 유효한 133부만을 SPSS 15.0버전으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대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지역사회에 원활한 인적자본의 공급, 지역소득의 증가, 교육기회 확대에 의한 지역 이미지 개선, 각종 대학시설의 지역사회에 제공 등이 있다. 부정적 효과는 양질의 교육을 받은 지역젊은이들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면서 생기는 지역격차의 확대, 지역고유의 문화와 새로운 문화의 충돌로 인한 갈등발생이 있다.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의 역할은 보조·자문 역할, 상징적 역할, 교육적 역할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시 되는 역할은 대학이 지역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선도적 역할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대학의 활성화 방안은 산학간 인적자원의 이동을 활성화 시켜 고급인력과 운영방식의 교류를 이루어나가는 것이다.

■ 중심어 : | 대학 | 지역발전 | 대학의 기능 |

Abstract

This study dealt with the effect of the university in area development to Cheonan city. This study ran parallel literature investigation and actual proof investigation. Questionnaires 394 enforce frequency analysis in SPSS 15.0 versions.

University positive effect on local community is smooth supply of human capital in local community, increase of regional income, improvement of area image by expanded education opportunities, supply of various university facilities in local communities etc. Contradictory effect is expansion of gap for areas that young persons in local community taken to education of good quality leave other local community, occurrence of conflict by collision of new culture and culture of area characteristic.

Role of university for area development is role of help·consultation, symbolic role, educational role etc. But the weighed role is leading role which university leads area development. Finally, the prompting methods of university for local community development .must accomplish interchange of operational mode with high quality human resources activating removal of manpower between arithmetic.

■ keyword : | University | Area Development | Function of University |

I. 서론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우수한 인재가 있는 지역에 자본이 투자되고 산업이 발전하는 패러다임이 보편화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역발전은 얼마나 많은 우수한 인재가 지역 내에서 육성되고 그 인재가 지역에 정주·보유하느냐에 달려 있게 된다. 지식과 가치의 창출과 확산이 지식기반사회의 원천이라고 볼 때, 지식과 정보·기술을 축적하고 이를 창출·활용하면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기본적 기능으로 하는 대학은 지역의 역동성을 견지하는 근원지가 되고 지역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다. 결국, 지역대학의 경쟁력은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1].

이 논문에서는 대학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실증분석을 통하여 실제 대학의 기여여부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연구를 통하여 이론적 고찰을 한 후 통계조사를 통하여 실증연구를 하였다. 첫째, 이론적 연구로서 지역사회와 대학의 상호의존적 기능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둘째, 실증연구로서 천안시의 대학 현황을 기술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대학이 지역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조사했다.

II. 이론적 고찰

1. 대학¹⁾의 기능

1) 교육기능

첫째, 지식전달기능이다. 대학이 수행하는 기능 중 핵심적인 기능은 지식전달기능이다. 다만, 대학은 단순히 기존지식의 전달이나 교육에만 치우쳐서는 안 되며 수준 높은 지식을 위해 연구기능을 연계시킨 새로운 지식 개발에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 학생들로 하여금 모든 학문적 분야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1) 대학은 학교체계에서 있어서 최고의 고등교육기관이며, 전문가 집단인 교수와 연구원 그리고 학생들로 구성되어 상호간 연결자로서의 대화를 통해 진리를 탐구하는 곳이며, 이러한 진리탐구를 바탕으로 대학은 교육, 연구, 사회봉사라는 3대 기능이 제도화된 곳이다.[2]

비판적인 사고력, 독창적인 문제 해결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교수방법이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평생교육기능이다. 현재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시급한 문제 중 하나가 빠른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다²⁾. 빠른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걱정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고령화 사회로 인한 생산성과 국가경쟁력 하락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은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2) 연구기능

첫째, 우수한 기술개발기능이다. 대학은 수준 높은 교육을 바탕으로 우수한 연구를 많이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이 지금까지 수행해온 연구는 기업과의 연계 부족으로 인해 연구성과가 기업의 기술력향상이나 경제발전에 커다란 도움은 되지 못했다. 대학의 우수한 연구성과를 기업의 기술력향상으로 실용화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기업은 상호보완적인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

둘째, 지역문제해결방안 제시기능이다. 대학이 수행하는 연구는 연구자들이 가진 개인적 관심에 기초하여 연구할 수 있다. 그 이 외에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도 많다. 따라서 대학은 각종 연구 활동을 통해서 지역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3) 봉사기능

대학의 봉사기능은 매우 다양하다. 즉 대학의 봉사기능은 ① 다양한 문화 창조 기능 ② 사회 혁신 기능 ③ 사회통합 및 통제 기능 ④ 각종 편의 시설 제공 기능 ⑤ 공무원의 전문화 향상 기능 ⑥ 지역개발을 위한 정보센터로서의 기능 등 다양하다.

4) 사회문화에 있어서 대학의 기능

먼저, 입지로 인한 측면이다. 첫째, 대학이 지역에 입지해 있지 하여 있다는 사실만으로 지역민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고 주민 상호간의 연대의식을 조성한다. 그리고 지역의 매력을 증대시키고 지역발전에 대한 기

2) 유엔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한 국가의 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 14%, 20% 이상이면 각각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대감과 지역 이미지를 개선시킨다. 둘째, 지역발전에 자극이 되고 부동산 가격의 상승 등은 지역의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상승시킴으로써 지역에 활기를 불어 넣는다. 또한 주민이 대학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생활의 편의를 제공받게 되며, 대학의 입지로 인한 각종 편의, 문화시설 및 도시기반시설의 확대를 가져온다 [3].

다음으로 대학 운영 및 인적 구성원활동에 의한 측면이다. 첫째, 대학은 지역사회의 전통문화를 계승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문화를 창조·발전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한다. 또한 대학은 사회혁신기능을 수행하는 가운데 지역사회의 영향을 미치게 된다 [4]. 둘째, 대학은 지역사회의 여러 이질적 요소들이 독자성과 고유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는 사회 통합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5]. 셋째, 대학은 수직적·수평적 수요를 촉진하는 사회이동촉진기능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넷째,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교육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며 학교시설의 개방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지적·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줌은 물론, 여가선용과 휴식 문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문화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2. 지역사회와 대학의 관계

대학과 지역사회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 대학은 지역사회의 한 구성단위로서 지역사회로부터 요구와 지지를 받고 대학의 3대 기능인 교육·연구·봉사 기능수행을 통하여 산출물을 지역사회에 보냄으로써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6]. 국내외적인 사회환경의 변화는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지역사회는 투입을 통하여 다시 대학에 새로운 지지와 요구를 보내게 된다. 지역사회의 한 구성단위로서 대학은 이러한 요구와 지지를 바탕으로 전환과정인 교육과 연구 및 사회봉사라는 기능 수행을 통하여 산출물로서 인재양성과 연구개발, 대학자원을 이용한 각종 프로그램 등을 지역사회에 제공하게 된다. 그러므로 대학과 지역사회는 상호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고 대학의 기능이 지역사회의 발전에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3. 지역발전에 대한 대학의 역할

첫째, 지역경제에 있어서 대학의 효과이다. 대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특정 지역 안에 대학이라는 거대한 규모의 기관이 설립됨으로써 제화의 수요와 산출을 통한 지역소득 창출 효과를 들 수 있다. 지역소득창출 효과는 먼저, 대학은 당해 지역의 주민을 교직원으로 고용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 등 직접 소득 효과를 창출한다. 다음으로, 대학은 교직원의 간접소비효과, 대학 주변의 각종 숙박비, 교통비, 유흥비 지출에 따른 간접 소득효과를 가져온다. 그다음으로 대학으로 인하여 증가된 주민들의 직접 및 간접소득은 소비과정에서 다시 계속적·반복적으로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는 유도소득 효과를 유발한다.

둘째, 인적자본 축적과 고용효과이다. 대학은 전문지식을 교육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관이다. 인적자본은 긍정적 외부효과를 가진 공공재로 인식되고 있으며, 경제성장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Lucas(1988)와 Romer(1986) 등의 내생적 성장이론에 따르면 한 나라의 평균 인적자본과 그 외부효과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된다고 한다. 인적 자본의 외부효과는 제한된 지역공간에서 노동자 상호간에 일어나는 지식과 기술의 공유 및 창출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인적 자본에 의한 외부효과는 동일한 특성을 지닌 노동자라 할지라도 인적 자본이 집중된 지역에서 보다 높은 생산성을 나타내며 높은 임금을 유도해 낸다. 따라서 타 지역에 비해 비교우위를 확보시켜 지역경제의 발전을 가져온다[7][8].

4. 분석기준

본 연구는 상기의 논의를 바탕으로 대학이 지역발전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학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분석기준을 설정하였다. 분석기준으로는 첫째, 지역사회에 대한 대학의 기여 정도, 둘째, 대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셋째, 대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다. 이러한 분석기준은 각각의 차원에 맞게 세부 분석기준을 구성하였다.

표 1. 분석기준

분석기준	세부분석 기준
대학의 기여정도	대학의 기여정도
대학의 긍정적 효과	인구적 측면 경제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 지역발전 연계 측면
대학의 부정적 효과	지역경제 역기능 측면 사회문화 역기능 측면
발전방향	대학의 기여 방향 구체적 활성화 방안

대학교로 9개가 있었으며, 2005년에 공주대학교 천안공과대학이 추가되어 현재는 10개가 되었다. 학생 수를 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2004년에서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에는 59,292명이 되었다. 교원수와 사무직원수, 교지면적 역시 2006년에 소량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건물면적은 2004년부터 꾸준히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2006년 주춤하기는 했지만, 학생수·교원수·교지면적·건물면적 모두 꾸준히 증가해 왔다.

III. 천안시의 대학 및 대학원 현황

1. 천안시의 대학 현황

먼저, 현재 천안에 위치한 2년제 대학은 백석문화대학, 천안연암대학 등 2개이다. 2006년까지는 천안공과대학까지 3개의 대학이 있었으나, 2007년 천안공과대학의 재학생들이 졸업하고, 공주대로 편입되면서 사실상 대학의 수는 2개로 줄어들었다. 학생 수는 2004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6년에는 6,799명까지 줄어들었지만 2007년에는 9,936명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하지만 대학의 수가 2개로 줄면서 인원수가 점점 감소하였다. 교원수와 사무직원수 역시 각각 2004년과 2007년을 기점으로 점점 감소하고 있다. 교지면적을 보면, 2006년 소량 증가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꾸준히 면적이 줄어들고 있다. 건물면적은 2004년부터 꾸준히 감소하였다. 전체적으로 학생수와, 교원수, 교지면적 등이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4년제 대학의 학교 수는 2004년 단국대학교, 호서대학교, 상명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선문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백석대학교, 성민

2. 천안시의 대학원 현황

대학원 수는 2002년에 단국대학교 대학원 3개, 선문신학교 대학원이 2개, 나사렛대학교 대학원이 3개, 백석대학교 대학원이 9개, 고려신학 대학원이 1개로 총 18개였다. 2003년에 들어와, 한국기술교육대학 대학원 3개, 남서울대학원이 1개, 호서대학원이 10개, 국제평화대학원 대학교 1개가 추가 되어 33개로 전년에 비해 15개가 증가했다. 2004년에는 선문신학교 대학원이 1개가 줄고, 성민고등경영대학원 1개가 추가되어 33개로 숫자는 동일했다. 2005년에는 호서대학원이 3개가 줄어 29개가 되었고, 2006년에는 백석대학교대학원이 2개가 줄어, 27개가 되었다. 2007년에는 남서울대학원이 2개로 증가해 천안시에 있는 대학원수가 28개로 증가하였고, 2008년에는 나사렛대학교 대학원이 1개, 호서대학교 대학원이 1개 추가되어 30개로 증가하였고, 2009년에는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이 1개 추가되어 31개가 되었다.

학생 수는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 석사과정의 경우 2004년부터 꾸준히 감소하

표 2. 2년제 대학 현황 (단위: 명)

연별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사무직원수			교지면적 (㎡)	건물면적 (연면적㎡)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2004	3	8,824	4,422	4,402	276	205	71	209	156	53	485,000	165,000
2005	3	7,078	3,313	3,765	162	96	66	144	109	35	357,000	156,000
2006	3	6,799	3,148	3,651	144	81	63	138	104	34	361,000	151,000
2007	2	9,936	5,520	4,416	247	135	112	173	128	45	350,000	126,000
2008	2	7,095	3,103	3,992	178	101	77	158	113	45	377,200	125,720
2009	2	6,497	2,877	3,620	255	177	78	159	115	44	845,820	128,970

* 자료 : 천안시 홈페이지

표 3. 4년제 대학교 현황 (단위 : 명)

연별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사무직원수			교지면적 (㎡)	건물면적 (연면적㎡)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2004	9	50,365	24,658	25,707	1,408	1,123	285	660	489	171	2,728,181	812,114
2005	10	54,437	28,053	26,384	1,616	1,302	314	698	531	167	3,141,354	869,081
2006	10	54,886	27,836	27,050	1,541	1,208	333	672	502	170	3,024,973	892,669
2007	10	58,951	30,014	28,937	1,744	1,365	379	689	506	183	3,315,810	941,590
2008	10	60,694	30,920	29,774	2,044	1,624	420	721	532	189	3,352,880	1,011.60
2009	10	59,292	29,408	29,884	2,109	1,653	456	879	645	234	3,614.780	1,106.95

* 자료 : 천안시 홈페이지

표 4. 대학원 현황 (단위 : 명)

연별 학교별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사무직원수		
		석사과정			박사과정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2004	33	4,089	2,652	1,437	494	387	107	105	92	13	60	32	28
2005	29	3,952	2,295	1,657	456	328	128	128	117	11	77	35	42
2006	27	4,082	2,250	1,832	515	374	141	242	149	93	104	60	44
2007	28	4,224	2,295	1,929	511	344	167	98	79	19	108	60	48
2008	30	4,792	2,601	2,191	791	542	249	180	132	48	97	53	44
2009	31	4,605	2,593	2,012	868	588	280	137	109	28	79	51	28

* 자료 : 천안시 홈페이지

다가 2008년에 다시 증가하였다. 박사과정은 2005년에 잠시 학생수가 감소했다가 2006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전체적으로 대학원의 수는 증감을 반복해 왔지만, 학생수는 꾸준히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천안시내 많은 대학의 입지는 천안시 인구증가 및 경제발전에도 도움을 주고 있음을 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특히, 대학의 입지는 산학협력을 통한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IV. 조사설계 및 실증분석 결과

1. 조사설계

설문조사는 현재 백석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010년 8월 28일부터 9월 11일까지 2주간 실시하였고, 배포된 143부의 설문지 중 유효한 133부만을 분석하였다³⁾. 설문지 구성은 전체적으로 총 다섯 분

야로 나누어진다. 지역사회에 대학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 대학이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질문, 대학이 지역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에 대한 질문, 앞으로 기대되는 대학의 역할과 이를 위한 대학의 활성화방안에 대한 질문, 연구대상자의 인적사항을 묻는 기초조사 부분이다.

2. 실증분석 결과

1) 설문참여자 기초조사

설문에 참여한 133명의 성별, 연령별, 학부별 분포를 살펴보았다. 응답자 중 여성의 수가 82명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해 남성 (38%)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나이의 경우에는 21-25세가 59%로 응답자 수가 가장 많았고 20세 이하가 35%, 26-30세 5%, 30세 이상 2%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별 분포는 사회복지학과와 어문학부가 각각 1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법정학과와

3) 회수된 설문지 133부를 SPSS 15.0버전으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관광학부 14명, 기독교학부 13명, 경상학부 12명, 보건학부와 정보통신학부 10명, 음악학부와 사범학부 8명, 디자인영상학부와 기독교미술학부 7명으로 전체적으로 고른 분포도를 보였다.

2) 대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첫째, 대학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다. 먼저, 대학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조사를 위한 '지역사회에 대학이 있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 하는가?' 에 대한 질문에서는 무려 응답자의 84.21%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며 그중 24.06%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부정적인 응답은 0.75%로 거의 없었고, 그저 그렇다는 대답 역시 15.04%에 불과하였다.

표 5. 대학의 존재에 대한 인식

	빈도	%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	32	24.06
긍정적으로 생각	80	60.15
그저 그렇다	20	15.04
부정적으로 생각	1	0.75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	0	0.00
합 계	133	100.0

둘째, 지역사회발전의 기여정도이다. 대학의 지역사회발전 기여정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중 75.94%가 기여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기여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4.51%로 미미하였고, 나머지 19.55%가 보통이라고 대답하였다.

표 6. 대학의 지역사회발전 기여정도

	빈도	%
크게 기여한다	39	29.32
기여한다	62	46.62
보통이다	26	19.55
기여하지 못한다	4	3.01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	2	1.50
합 계	133	100.0

셋째,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분야이다. 대학이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분야로는 지역문화 30.08%에 대한 응답이 1순위였고, 지역경제 18.80%, 지역개발 18.80%, 교통확대 18.80%로 비등하며, 그외 주민교육 9.77%, 인구유출억제 2.26%, 산학협동1.50% 순으로 나타났다.

표 7.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분야

	빈도	%
주민교육	13	9.77
지역문화	40	30.08
지역경제	25	18.80
산학협동	2	1.50
지역개발	25	18.80
인구유출억제	3	2.26
교통확대	25	18.80
합 계	133	100.0

넷째, 대학에 기대하는 역할이다.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기대되는 역할로는 지역사회의 선도적 역할이 30.8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보조·자문역할 24.81%, 지방학생 우대의 교육적 역할 22.56%, 상징적 역할은 21.05%로 각각 높은 응답을 받았다. 기타 의견으로는 '수도권집중문제 해결'이 있었다. 이는 백석대학교 재학생들이 대학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단순한 상징적 역할이나 보조적 역할을 넘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8. 대학에 기대하는 역할

	빈도	%
보조 또는 자문역할	33	24.81
선도적 역할	41	30.83
상징적 역할	28	21.05
지방학생 우대의 교육적 역할	30	22.56
기타	1	0.75
합 계	133	100.0

3) 대학의 긍정적 영향

첫째, 인구적 측면에는 4가지 효과가 있다. 먼저, 인구증가효과이다. 대학설립은 지역발전의 한 요인인 인구증가효과를 가져온다. 이 인구 증가효과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조로 인한 인구증가효과를 말하는 것으로, 대학설립으로 인해 다른 지역에 거주하던 직원 및 그 가족 그리고 학생들이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표 9]를 통해 설문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36.09%가 대학이 인구의 증가효과를 일으킨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단순히 대학을 설립하는 것만으로 인구증가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대학의 설립이 직접적인 인구증가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대학생들과 교직원들을 위한 쾌적한 주거 공간, 교육·문화시설 등이 확보 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인구의 정착효과이다. 인구의 정착효과는 위에서 언급한 인구의 증가효과와는 다른 성격을 지닌다. 인구의 정착효과는 대학이 설립되지 않을 경우 타 지역으로 유출될 인구를 정착시키는 효과를 말한다. 즉, 대학으로 인한 지역발전이 젊은 연령층의 정착과 타지역주민의 유입, 그 지역출신자의 귀향 또는 전입을 유도하는 간접적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럼으로써 노령화된 인구조로 구성된 도시가 아닌 청장년층으로 구성된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조사결과를 보면 대학이 인구정착에 미치는 효과는 12.78%로 인구증가나 인적자본공급효과에 비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인구적 측면

	빈도	%
인구증가	48	36.09
인구정착	17	12.78
인적자본공급	65	48.87
기타	3	2.26
합 계	133	100

그다음으로 인적자본 공급효과이다. 대학은 고급인력과 숙련기술자를 양성하여 인적자본을 공급한다. 대학의 인적자본 공급효과는 지역 내 특성화된 산업과 연계하여 맞춤형 인재를 공급할 수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 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훈련된 인적자본들이 그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지역과 세계 각지에서 활약하게 되면 지역 발전을 촉진시키고 나아가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위 [표 9]을 보면 지역발전의 인구적 측면에서 대학이 인적자본공급에 미치는 효과는 48.8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는 응답자들이 대학은 단순히 인구증가나 인구정착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지 보다는 인적자본공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해준다.

둘째, 경제적 측면이다. 경제적 측면도 4가지 효과로 나누어 살펴본다. 먼저, 지역고용증가효과이다. 대학을 경제적, 사회·문화적 혁신을 가져오는 성장거점지역으로 보면 고용측면에서 해당지역에 미치는 효과를 직접고용과 간접고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직접고용은 대학설립 시 필요한 건설인력과 대학교직원등 대학에서 직접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간접고용은 이러한 직접고용과 관련된 새로운 활동의 증가로 나타나는 2차적인 고용을 뜻한다. 즉, 대학교직원과 학생들의 활동에 필요한 실험도구 및 각종 소비재 등 물품 구입과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교직원의 가계 소비지출의 수요 충족을 위한 서비스산업에서의 고용등을 말한다. 경제기반이론에 의하면 특정지역에 수출부문의 고용이 증가되면 이를 지원하는 지역부문의 고용이 일정한 비율만큼 늘어나게 되는데 이를 간접고용효과라고 한다. 설문조사의 결과 지역발전의 경제적 측면에 지역고용증가의 효과는 22.56%로 나타났다.

표 10. 경제적 측면

	빈도	%
지역고용 증가	30	22.56
지역소득 증가	75	56.39
생산기반조성과 경제조직개선사업 참여	24	18.05
기타	4	3.01
합 계	133	100.0

다음으로, 지역소득 증가효과이다. [표 10]을 살펴보면 대학이 지역소득증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56.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학으로 인한 지역소득 증가효과는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하나는 대학을 중추관리기관으로 보고, 중추관리기관이 지역 내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고 이들의 소비가 지역 생산, 부가가치 및 소득에 주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측

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학은 종사자에게 임금을 지불하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경비를 지출하며, 이는 가계 소비지출과 업무소비지출을 통하여 지역 내의 재화 및 서비스 수요를 증대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요증대는 관련부문의 생산능력을 유발시키고 동시에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관련 부문의 취업자들은 새로운 임금소득을 얻게 되고 이들은 다시 지역사회 발전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다음으로, 생산기반 조성과 경제조직의 개선사업에의 참여이다. 생산기반의 조성은 경제조직의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는 농촌지역에서는 농촌기술의 개발 중 자 및 종축의 개량, 농노의 확장과 시설, 농지정리, 관계 및 수리시설의 확충, 농가부업의 개발, 공동생산 조직의 확충, 공동유동조직의 확충 등을 들 수 있다. 도시 지역에서는 고용기회 증진을 위한 투자 규모의 확대, 공동신용조합의 육성, 공동구매 조직의 육성 등이 주로 그 개발대상이 된다. [표 10]을 보면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경제 조직개선 사업에 참여는 18.05%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 문화적 측면이다. 먼저, 사회발전에 지도적 역할수행이다. 대학은 지역가치창출의 집산지이며 [9], 사회발전에 지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고 주민 상호간의 연대의식을 조성·강화하는데 기여한다. 대학은 사회의 급속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이를 지역주민에게 다시 전달해주는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표 11]을 살펴보면 사회발전에 지도적 기능에 대한 응답은 17.29%이다.

표 11. 사회 문화적 측면

	빈도	%
지도적기능	23	17.29
전통문화발전	8	6.02
교육기회의 확대로 인한 지역이미지개선	79	59.40
선도자적역할	23	17.29
합 계	133	100.0

다음으로 지역의 전통문화 발전, 전수이다. 대학은 지역의 전통문화를 이어받고, 발전·전수시키며 지역의 문화적 환경조성에 이바지 한다. 문화는 개별적 세계지만, 최후에는 개인에게 속하므로 문화적 효과는 개

인의 의식을 통하여 측정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표 11]을 보면 지역 전통문화발전·전수는 6.02%로 가장 적은 응답률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 도시라는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효과는 높게 보지만, 대학이 지역 전통문화 발전과 전수에는 별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다음으로 교육기회의 확대에 의한 지역 이미지 개선이다. 대학은 인재가 집적된 기관, 고급문화의 전달자로 그 자체가 지역의 매력적 요인이 된다. 설문조사 결과 지역발전의 사회문화적 측면에 교육기회의 확대에 의한 지역 이미지 개선 의견이 59.40%로 가장 높았다.

마지막으로 지역발전의 선도자적 역할 수행이다. 대학은 해당지역의 정신적 멘토로서 지역발전에 선도자적 역할을 수행한다. 위 [표 11]에서 17.29%의 응답자가 천안지역에서 대학이 지역발전에 있어서 선도자적 역할을 수행하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역사회 연계 측면이다. 지역사회연계효과란 대학 구성원의 각종 봉사활동이나 자문활동, 정보교환, 기술지도, 기술교류 등을 통한 지역사회와 대학의 상호작용 관계를 말한다.

표 12. 지역발전의 연계측면의 효과

	빈도	%
봉사활동을 통한 대학과 지역사회 연계	47	35.34
대학의 학술문화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혁신	26	19.55
대학이 가진 각종시설제공	44	33.08
지역 내 각종정보제공	16	12.03
합 계	133	100.0

먼저, 설문결과 천안지역 주민들은 각종 봉사활동을 통한 대학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기능을 제고에 대해 35.34%의 가장 많은 응답을 했다. 다음으로 대학의 학술·문화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혁신이다. 대학의 학술·문화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혁신에 대한 주민들의 응답률은 19.55%로 지역 내 각종 정보 제공과 함께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였다. 그다음으로 대학이 가진 각종시설 제공이다. 천안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주민들은 대학이 가진 각종시설 제공에 대해 33.08%의 응답률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지역 내 각종정

보 제공해당이다. 대학은 지역 내 연구기관, 국가기관과 상호교류하며, 산학연 연계를 통하여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개발하고 기업에게 공급함으로써 지역산업의 발전에 기여한다. 조사대상의 12.03%가 대학은 지역 내 각종정보를 제공한다고 응답하였다.

4. 대학의 부정적 영향

1) 경제적 측면

다음은 대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측면에 대한 역기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학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역기능에 대해서 지역 격차 확대가 36.84%로 1순위로 나타났고, 교통문제와 지역 내 물가상승이 30.07%,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천안지역의 교통이 혼잡한 이유에 대학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첫째, 교통문제이다. 대학시설의 공간적 분산은 인구의 분산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해당 지역의 발전에 대한 기여는 미흡하고 오히려 대도시사이의 교통량만 증가시켜 교통을 혼잡하게 하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 왔다[10]. 조사 결과에서도 30.07%에 달하는 응답자들이 대학이 교통문제를 악화시켰다고 응답한 것을 보면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표 13. 지역경제에 대한 역기능

	빈도	%
교통문제	40	30.07
지역 내 물가상승	40	30.07
지역격차 확대	49	36.84
기타	4	3.01
합 계	133	100.0

둘째, 지역 내 물가상승이다.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는 대학생들로 인하여 생산 활동과 연관이 있는 시설들의 증가는 크지 않은 반면 생산 활동과 관련이 적은 유흥, 오락시설이 많아지고 소비품조가 만연되어 이로 인해 물가가 오를 수 있다[11]. 조사 결과에서도 30.07%에 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지역격차 확대이다. 지방대학과 관련해서 의식수준이 높아진 교육 받은 인력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어 오히려 지역격차가 심해질 수 있다. 조사 결과에서도 36.84%에 달하는 응답자들이 지역격차 확대를 응답하고 있다.

2) 사회문화적 측면

대학이 지역의 사회문화에 미치는 역기능에 대해서는 일부 계층의 자격지심 발생가능42.86%이 1순위로 나타났고, 문화수준의 격차로 인한 갈등 발생 29.32%, 전통적 윤리의식의 파괴14.29%, 애항심과 공동체 의식 저하13.5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지역의 선호차이로 인한 자격지심의 피해가 높다는 것을 [표 14]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첫째, 애항심과 공동체의식 저하이다. 대학으로 인해 외지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에 대한 향토 및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고 애항심이 약화 될 수 있다. 둘째, 전통윤리 파괴다. 자유분방한 젊은 대학생들로 인해 전통윤리관이 파괴되고 성적 문란행위 등이 일어날 수 있다. 셋째, 문화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다. 문화는 인구의 이동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외부지역 인구가 지역 내에 유입과정에 새로운 문화가 지역 내에 유입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지역 내 고유의 문화와 외부문화가 서로 융화되지 못하고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 넷째, 자격지심 발생문제다. 지나친 학벌중심주의가 강조되는 우리의 경우 수준 높은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대학교육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열등감과 자격지심을 느끼는 경우를 종종 찾아볼 수 있다.

표 14. 지역의 사회문화에 대한 역기능

	빈도	%
애항심과 공동체의식저하	18	13.53
전통윤리 파괴	19	14.29
문화수준격차갈등	39	29.32
자격지심발생	57	42.86
합 계	133	100.0

5.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대학 활성화 방안

표 15.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 활성화 방안

	빈도	%
산학관 네트워크 형성	9	6.77
대학의 자율성 확대	16	12.03
대학에 대한 각종 지원 확대	36	27.07
산학간 인적자원 이동 활성화	52	39.10
대학정책과 지역정책 통합조정	20	15.04
합 계	133	100.0

1) 산학관 네트워크 형성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 활성화 방안은 먼저 산학관 네트워크 형성을 들 수 있다. 대학의 기술 잠재력을 이용하는 산학관 네트워크 형성은 구체적으로 기초과학-응용과학기술-실용상품화 기술연구로 이어지는 연구기능 연담화에 의한 공동연구 및 공동기자재의 활용, 상호 인력, 정보, 기술의 교류, 캠퍼스 내 산업연구단지의 조성, 대학의 연구시설로부터의 스피노프를 통한 개발 지향적 기업의 창업 등으로 나타난다⁴⁾.

위 표를 보면 산학관 네트워크 형성의 응답자는 전체의 6.77%에 불과한데 이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로 다른 요인에 비하여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대학의 자율성 확대

지식사회에서 대학의 새 역할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대학내부의 구조개혁, 적절한 유인체계의 도입, 조직개편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시켜 국가에서는 국립대학의 인원, 조직 및 예산에 대한 총량만을 관리하고 내부적으로는 자율에 맡겨야 한다. 대학 활성화 방안 중 대학의 자율성 확대는 전체의 12.03%를 차지했다.

3) 대학에 대한 각종 지원 확대

지방대학의 기술혁신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기술혁신센터사업(TIC)을 실시하여 지방대학의 연구장비를 확충해야 한다. 지역기술혁신센터사업 선정 시 지역진흥계획 및 지역전략사업과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지역전략산업 석·박사 연구인력 양성사업과 대학보유기술 이전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지방대학과 지역산업 상호발전할 수 있는 체제구축이 필요하다.

4) 산학간 인적자원 이동 활성화

지식확산의 가장 효과적인 메커니즘은 지식을 가진 사람의 이동이므로 산업현장과 대학 혹은 대학 간 인적자원의 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수신분의 다양화로 산업체 인력의 영입, 대학 간 교류의 강화 혹은 대학 간 연합체의 강화를 통한 교류의 활성화가 요망된다. 같은 맥락에서 국내 부족한 대학의 지식역량을 단시간에 해소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의 하나는 해외지식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전략이다. 이를 통하여 지식의 창출방식 뿐 아니라 운영방식과 그 문화까지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 [표 4-11]을 보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대학 활성화 방법 중 산학간 인적자원 이동의 활성화가 39.10%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5) 대학정책과 지역정책 통합조정

현재 대학정책과 지역정책은 서로의 조정 없이 만들어져 대학정책과 지역정책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정책과 지역정책 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방대학의 경우 연구, 교육 및 봉사를 통하여 그 지역에 혁신역량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의 지역사회건인효과 및 지역의 대학발전 back-up효과를 통하여 지역성장과 대학발전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선순환구조로 돌려야 한다. 대학정책과 지역정책의 통합조정에 대한 설문 응답률은 15.04%를 나타냈다.

6) 기타 부정적 측면의 개선방안

첫째, 경제적 측면의 교통문제, 지역내 물가상승, 지

4) 외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의 실리콘벨리는 스탠포드대학과 연계되어 발전하였고, 미국의 루트 128 역시 MIT와의 산학협동으로 성장했다. 이는 산학협동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역격차 확대의 문제개선이이다. 먼저, 대학의 위치로 인하여 도로 및 고속톨게이트는 특정시간대에 교통이 혼잡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로확충, 광역천철건설, 신호체계 개선 등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지역내 불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대학내 서비스업종의 가격인상 자제지도, 대학기숙사건설 지원 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역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가 취약한 지역에 대학 유치, 대학생들이 선호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단지 조성 등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문화적 측면의 자격지심 발생, 문화수준격차 발생, 전통윤리과괴, 애항심과 공동체의식 저하 등의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학당국이 지역주민들에 대한 주민대학 등을 개설하거나 자치단체가 주민대학 등을 운영하여 주민들을 교육시키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천안시의 경우, 각 대학마다 “천안학” 강좌의 운영을 통해 대학생들에게 천안의 이해를 도모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지역발전과 대학의 연관관계를 알아보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대학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실증적 접근을 위하여 대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대학의 발전방향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지역사회와 대학의 본질과 대학이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제시하였고, 대학생들의 인식조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대학의 필요성, 대학이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효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은 설문지 조사연구를 택했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역사회와 대학의 상관관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에 대학의 영향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기여 정도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지역문화·경제·지역개발·교통확대 등의 측면에서는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인구유출억제·산학협동·주민교

육 등의 분야에서의 기여도는 크지 않다. 대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구체적인 효과로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대학이 설립됨으로 인해 지역사회에 인적자본의 공급이 원활해지고, 지역소득이 증가하고, 교육기회 확대로 인하여 지역의 이미지가 개선되며, 대학이 가진 각종 시설이 지역사회에 제공되는 효과가 있다. 반대로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양질의 교육을 받은 지역의 젊은이들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면서 생기는 지역 격차 확대와 지역고유의 문화와 새로운 문화의 충돌로 인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의 역할은 보조 자문 역할, 상징적 역할, 교육적 역할 등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시 되는 역할은 대학이 지역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어나가는 선도적 역할이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대학의 활성화 방안은 산학간 인적자원의 이동을 활성화 시켜 고급인력과 운영방식의 교류를 이루어나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한승희, “지역사회에서 대학의 역할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대학원, p.4, 2003.
- [2] 최청일, “지방문화와 지방대학의 역할과 기능”, 「학생연구」 제20집, 동아대학교, p.37, 1992.
- [3] 이만희, “대학과 지역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 광운대학교, p.32. 2001.
- [4] Lechat Jean-Marie, “University Influence on Regional Development European Journal of Education,” Vol.14. No.3, 1979.
- [5] 박용현, 이상주, 김영찬,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출판사. p.79, 1979.
- [6] 이만희, “대학과 지역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 광운대학교, p.32. 2001.
- [7] 강승구, 이민환, “지방대학과 지역경제 효과: 소득 창출효과의 관점에서”, 지역경제 연구, 제22권 제3호, p.254, 2004.
- [8] 박종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2002.

- [9] 최용현, “지역사회발전과 산학협동에 대한 대학의 역할”, 금오공과대학 학술수록집, 1989.
- [10] 윤대식, “대학내 부서간 갈등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북대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11] 임승달 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방안”, 국토연구원[편], 2004.

저 자 소 개

박 중 관(Jong-Gwan Park)

정회원



- 2009년 8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박사)
- 2009년 ~ 현재 : 백석대학교 법정학부 행정학전공 주임
- 2008년 12월 ~ 현재 : 대통령소속지방분권위원회 실무위원

- 2008년 8월 ~ 2010년 10월 : 정부합동평가 평가위원
 - 2010년 1월 ~ 2010년 12월 : 서울행정학회 부회장
 - 2010년 3월 ~ 현재 : 충청남도 정책자문교수
- <관심분야> : 구역개편, 성과관리, 사회자본, 정부기능